

[2] 김 상 준

월곡 김상준 선생께서는 1887년 8월 27일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218번지에서 고려의 충신 상춘공의 16대 손으로 탄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였으며 특히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6살 그 나이는 재롱을 떨고 한참이나 개구질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월곡 선생께서는 일일이 부모님의 침구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음식도 맛을 본뒤 잡숫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학문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셔서 7세때 소학에 능통하고, 20세되던 해에는 사서삼경을 마치어 그 필적과 학문을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22세 때부터 월곡 선생께서는 한약방을 경영하시며 아동교육과 가난한 가정애 학문을 가르치는 한편 무료로 병을 고쳐 주었다고 한다. 또한 1910년 한일합방 후로는 친구인 김한중 선생과 나라를 빼앗긴 것을 분통히 여기고 1916년 3월에 김한중, 채가중, 김경태등과 광복회를 조직했고, 토지 600여평을 운동 자금으로 내어 토지 수합에 힘쓰고, 인천에 정미소를 차려 비밀 아지트로 삼아 「일본인을 추방하자」라는 구호 아래 조선총독부를 습격하여 총독을 살해할 중대한 계획을 세웠다. 광복 단원들은 즉시 단원을 모으고 군자금을 모았다. 당시 군자금 각출을 위한 암호 연락은 창호지에 간수를 사용하여 연락하였으며 홍성군 장성면장이 그 계획에 불응하므로 살해 되었다. 후에 이 사실을 안 그의 아들이 고발하여 월곡 김상준 선생은 1917년 12월 21일 체포되어 4년간 형을 받았다. 여느 사람 같으면 그만큼 고통스런 옥고를 치르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애쓸텐데 월곡 선생께서는 친일파의 압박 속에서도 독립운동과 아동 교육에 끝까지 힘쓰시다가 또다시 친일파의 탄압속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44년 12월 24일 58세의 일기로 별세 하셨다.

묘지는 온양읍 초사리 456번지에 있다. 월곡 김상준 선생께서는 나라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를 잃으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처참하게 되는지를 알수가 있었다. 저 간악한 일본은 그들의 힘만 믿고 색다른 역사 왜곡이라는 간접 침략을 저질렀으며 복과는 호시탐탐이 땅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의 김상준 선생과 같은 애국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아 마음을 새롭게 먹고, 총화단결을 해야 겠다.